

그리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5
IV. 국제신인도	7
V. 종합의견	11

I. 일반개황

면적	132천 km ²	G D P	2,418억 달러
인구	1천 113만 명	1 인 당 GDP	21,810달러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Euro (EUR)
대외정책	EU 역내 우호관계 유지 중점	환율(달러당)	0.75

- 그리스는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 남단에 위치한 국가로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및 터키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5분의 3 수준임.
- 2009년 10월 새로 출범한 사회당(PASOK) 정부가 이전 정부는 그리스의 재정수지 적자와 정부채무 규모를 축소 발표했다고 언급한 이후 그리스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며 그리스 재정위기가 촉발됨.
- 그리스는 과도한 복지지출, 방만한 재정운용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무리한 유로 통화권 편입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 누적에도 환율조정을 통한 수출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2010년 이후 재정 위기를 겪게 됨.
- 그리스는 1952년에 NATO에 가입했으며, 1981년 및 2001년에 각각 EU 및 유로존에 가입함.

II. 경제동향

1.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부실대출과 보유국채 상각에 따른 손실 등으로 유동성 부족현상 지속

○ 그리스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부실대출과 보유국채 상각에 따른 손실 등으로 유동성 부족현상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그리스 금융부문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동성 지원 등에 의존하고 있음.

- National Bank of Greece 등 그리스 4대 은행은 2012년 5월 헬레닉금융안정기금(HFSF, EU가 그리스 은행권 자본확충을 위해 조성한 기금)을 통해 180억 유로를 지원받음.

○ 그리스 중앙은행은 상업은행들이 2014년 말까지 자기자본비율을 10%로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2012년 7월 말 Agricultural Bank가 Piraeus Bank에 인수되는 등 상업은행의 수가 2012년 7월 17개에서 2013년 7월 6개*로 축소되는 등 은행부문 구조조정이 진행됨.

* Piraeus Bank, National Bank of Greece, Alpha Bank, Eurobank, Attica Bank, Aegean Baltic Bank

- 그리스 중앙은행은 2014년 3월 시중은행들이 추가로 64억 유로 규모의 자본 확충 필요성을 제기

□ 관광업과 해운업 등 서비스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경제위기에 취약

○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등 제조업이 발전되어 있지 않고 관광업과 해운업 등 서비스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경제위기에 취약함.

○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관광수입이 급감하고, 세계 교역량이 감소함에 따라 해운업 수입도 감소함.

□ 유럽 경제권에 편중된 무역구조 지속

- 그리스는 유럽 경제권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유럽 경제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2012년 기준 유럽 경제권이 그리스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7%,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2%임.

* 주요 수출대상국('12): 터키(10.8%), 이탈리아(7.7%), 독일(6.4%), 불가리아(5.7%), 사이프러스(5.2%) 등

* 주요 수입대상국('12): 러시아(12.2%), 독일(9.3%), 이탈리아(8.2%), 중국(4.7%), 네덜란드(4.6%) 등

□ 긴축정책 실시로 재정수지 적자 축소,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적자 축소와 서비스수지 흑자 증가 등으로 흑자 전환

- 재정수지 적자는 과도한 재정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용 등으로 2009년 GDP 대비 -15.6%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세금인상과 연금삭감 등 긴축정책 실시로 2012년 -9.0%, 2013년 -4.2% 수준으로 축소됨.
- 경상수지 적자는 2008년 -512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수입감소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축소로 2012년 -59억 달러로 축소됨. 2013년에는 상품수지 적자 축소, 서비스수지 흑자 증가 등으로 46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함.

나. 성장 잠재력

□ 과도한 재정수지 적자에 따른 재정위기로 인해 2008년 이후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성장잠재력 축소

- 글로벌 경기침체 및 그리스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2013년 경제성장률이 -3.9%로 추정되는 등 2008년 이후 GDP 규모가 22% 수준 축소됨.
- 경제성장률: -0.2%(2008) → -3.1%(2009) → -4.9%(2010) → -7.1%(2011) → -7.0%(2012) → -3.9%(2013)

□ 글로벌 경기침체 및 그리스 재정위기로 2009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 위축

- 2008년 말 본격화된 글로벌 경기침체, 2010년 초에 발발한 그리스 재정 위기로 2009년 이후 FDI 유입이 위축됨. 2005~08년 평균 34억 달러를 기록한 FDI 유입액이 2009~12년에는 평균 15억 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침.
 - 2013년 FDI 유입은 전년 17억 달러 대비 감소한 13억 달러를 기록함.
-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하는 기업경영여건평가(Doing Business Index)에서 그리스는 2014년 72/189위로 평가되어 기업경영여건이 중위권으로 나타남.
 - OECD 중에서는 체코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순위이며 분야별로는 재산 등록, 계약 이행 등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음.

다. 정책성과

□ 긴축 재정정책 지속 추진으로 재정수지 적자 비율 소폭 개선

- EU와 IMF가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연금제도 개혁, 과세 강화, 공공부문 개혁, 노사관계 개혁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09년 -15.6%에서 세금인상 및 연금 삭감 등을 통해 2013년 -4.2% 수준으로 하락함.
- 그리스와 EU 및 IMF는 2012년 10월 국채이자를 고려하지 않는 기초 재정수지 흑자 목표(GDP의 4.5%) 달성시한을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함. 그리스는 2013년 2월 2013~16년 중기재정전략을 통해 2016년 재정수지 적자를 -2.3%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3년 7월 중순 그리스 의회는 공공부문 인력 감축, 세제 개편, 의료보험 제도 개혁 등을 포괄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국채발행 성공으로 자본시장 복귀

- 2010년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후 4년 만에 경제지표 호전으로 2014년 4월 국채발행에 성공하여 자본시장에 복귀함.

- 동 국채발행으로 만기 5년, 금리 4.75%의 조건으로 30억 유로를 조달함.

□ 정부채무는 GDP의 175.1%로 EU 회원국 중 최고 수준

- GDP 대비 그리스 정부채무는 2012년 말 156.9%, 2013년 말 175.1%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 GDP 대비 정부채무: 170.3%(2011)→156.9%(2012)→175.1%(2013)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총선의 재실시로 연정을 구성하였으나 연정이 추구하는 긴축 재정과 개혁에 반대하는 강력한 야당 등장으로 정국 불안 지속

- 2012년 6월 2차 총선 결과 제1당인 신민주당이 총의석의 29.7%를 득표함에 따라 사회당 등과 연립정부를 수립하여 긴축정책과 개혁 실행 추진

* 5월 총선 결과, 과반 확보에 실패한 제1당(신민주당)이 연정구성을 추진하였으나 연정구성에 실패함에 따라 2차 총선 실시

- 그러나 300석 가운데 26.9%를 획득한 제1야당인 시리자당이 공공부문 인력감축과 긴축정책 등의 정부정책을 반대하고 있어 정국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2013년 6월 말 연정내 소수정당인 민주좌파가 연정을 탈퇴하였으나, 연정은 7월 중순 의회에서 300석 중 155석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공부문 인력감축 등을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그리스 의회는 2014년 3월 말 그리스 정부와 국제 채권단 사이에 합의된 우유시장 개방 등 개혁법안을 승인함. 동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 축출로 연정 의원수가 152석으로 축소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긴축 재정정책 및 민영화에 반대하는 시위 및 파업 빈번

- 그리스 정부는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부문 임금삭감, 세금인상, 연금개혁 등을 포함한 긴축 재정정책 및 국유자산 민영화의 추진에 따라 공공부문 근로자를 중심으로 반정부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2012년 11월 의회의 새로운 긴축안 통과에 반발하여 노총을 중심으로 총 파업에 돌입하는 등 대규모 시위와 파업 실시
- 2013년 7월에도 공공부문 인력 2만 5천 명을 전직시키거나 해고하기로 하는 법안 통과 등으로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

□ 높은 실업률로 사회불안 초래

- 그리스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 시행, 외국인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2013년에는 27.3%로 상승하였음. 특히, 청년실업률이 2013년 말 기준 58.3% 수준에 이름.

* 실업률: 9.5%(2009) → 12.6%(2010) → 17.7%(2011) → 24.3%(2012) → 27.3%(2013)

3. 국제관계

□ EU, IMF 등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에 역점

- EU, IMF 등의 구제금융에 지속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구제금융 지원조건 이행을 위한 각종 개혁의 추진을 위해서도 EU와의 관계 유지에 역점을 두고 있음.

□ 터키 및 마케도니아와는 유전 개발과 국제기구 가입 등과 관련하여 긴장관계 지속

- 에게해의 영해권을 둘러싸고 촉발된 그리스와 터키의 갈등은 군비경쟁을 종식시키고 협력을 강화하려 함에 따라 현저히 개선되고 있음. 그러나 에게해 지역의 유전 개발을 둘러싼 갈등 자체는 해결이 요원함.

- 마케도니아의 국가명과 영토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무력충돌이나 경제체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지만 마케도니아의 NATO 및 EU 가입에 대한 그리스의 반대로 긴장상태가 계속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EU 및 IMF로부터 자금지원 계속

- EU와 IMF의 구제금융 규모는 2,375억 유로 수준이며 이 중 2,150억 유로가 기지원됨.
- 그리스는 2012년 3월 1,070억 유로 규모의 민간채무를 탕감 받았으며 2012년 11월 재정긴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국채 재매입을 통해 211억 유로 규모의 민간채무를 탕감 받음.
 - EU와 IMF는 2012년 11월, 그리스가 액면가보다 크게 할인된 가격에 국채를 재매입해 민간부문 부채를 상환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차기 구제금융분을 집행한다는데 합의했으며, 그리스는 동년 12월 약 319억 유로 규모의 국채 재매입에 성공함.
- 이에 따라 EU는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에 각각 343억 유로와 92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급했으며, IMF도 2013년 1월 32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급하는 등 자금지원을 계속함.

□ 재정 부족으로 인해 추가 구제금융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 IMF는 7월 보고서를 통해 그리스는 2015년까지 재정부족으로 11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이 필요하며 이와 별도로 74억 유로(GDP의 4%) 규모의 채무를 탕감받아야 한다고 분석함.
- 이에 따라 향후 추가 자금지원 및 채권 원리금 탕감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자국내 반발이 예상됨.

2. 국제시장평가

□ 재정수지 적자 개선 등을 이유로 그리스 정부채권 평가등급 소폭 상승

-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그리스 재정위기 발발로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9년 말 이후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수차례 하향조정했으며 2014년 3월 말 그리스 신용등급은 S&P 기준 B- 수준으로 평가됨.
 - S&P: B('11.5월) → CCC('11.6월) → CC('11.7월) → SD('12.2월) → CCC('12.5월) → SD('12.12월) → B-('12.12월)
 - Moody's: B1('11.3월) → Caa1('11.6월) → Ca('11.7월) → C('12.3월) → Caa3('13.11월)
 - Fitch: B+('11.5월) → CCC('11.7월) → C('12.2월) → RD('12.3월) → B-('12.3월) → CCC('12.5월) → B-('13.5월)
- S&P는 2012년 2월 말 그리스 신용등급을 선택적디폴트(Selective Default)로 강등하였으나, 동년 5월 초에는 그리스 부채감축 등을 반영하여 CCC로 상향조정함. 2012년 12월 초 그리스의 국채 재매입 계획이 나온 직후 신용등급을 다시 SD로 강등하였음. 그러나, 국채 재매입 조치가 완료되고 구제금융 지원 재개가 승인됨에 따라 동년 12월 중순 신용등급을 B-로 상향조정함.
- Moody's는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2011년 3월 초에 B1, 6월 초에 Caa1으로 각각 하향조정했으며 7월 말에는 민간투자자의 경제적손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Ca로 하향조정함. 2012년 3월 초에는 민간채권단에 대한 채무조정을 반영해 그리스 신용등급을 디폴트 수준인 C로 강등함. 2013년 11월에는 재정수지 적자 개선 등을 이유로 Caa3로 상향조정함.
- Fitch는 2012년 2월 그리스 정부의 국채 교환조건 등을 반영하여 그리스 신용등급을 C등급으로 하향조정한 후 3월 초에는 제한적디폴트(Restricted Default) 등급으로 강등함. 동년 3월 중순, 국채교환 성공을 반영해 신용등급을 B-로 상향조정한 이후 5월 정치불안에 따른 유로존 탈퇴 가능성 등을 이유로 CCC로 다시 강등함. 2013년 5월에는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축소 등을 근거로 B-로 상향조정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수출입은행	D2 (2014. 4.)	D2 (2013.10.)
OECD	등급 없음 (2014. 1.)	등급 없음 (2013. 1.)
S&P	B- (2012.12.)	SD (2012.12.)
Moody's	Caa3 (2013.11.)	C (2012. 3.)
Fitch	B- (2013. 5.)	CCC (2012. 5.)

□ 그리스 국채수익률은 하락세

- 그리스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2012년 2월 29.2%를 기록한 이후 2013년 12월에는 8.7%까지 하락함. 2014년 4월말 현재 동 국채수익률은 6.2%로 다시 소폭 하락함.

□ 주요 ECA 인수태도

- US Eximbank :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단기 전액인수 가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1년 4월 5일 (북한과는 2001. 3. 8)

- 양국간 수교 역사는 긴 편이며, 무역, 과학기술, 항공, 관광 등 다양한 방면의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음.

* 한국-그리스 주요 협정 체결 현황

- : 무역협정(1974), 과학기술협정(1987), 항공협정(1995), 투자보장협정(1995), 이중과세방지협정(1995), 관광협정(2006), 해상협정(2006), 경제협력협정(2010)

□ 그리스와의 교역규모 감소

○ 그리스와의 교역규모는 2011년에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13.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도 19.1억 달러로 전년 대비 41.4% 증가했으나 2013년에는 11.6억 달러로 감소함.

- 주요 수출품은 선박, 합성수지, 건전지 및 축전지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석유제품, 기호식품, 모피 등임.

○ 2013년 기준 그리스는 우리나라의 46위 수출대상국, 58위 수입대상국임.

* 한국-그리스 교역규모 추이

: 12.1억 달러(2010)→13.5억 달러(2011)→19.1억 달러(2012)→11.6억 달러(2013)

□ 그리스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 미미

○ 우리나라의 대 그리스 직접투자 실적은 2013년 12월 말 누계기준으로 11건, 821만 달러로 직접투자 규모가 미미함.

○ 우리나라의 대 그리스 직접투자는 2012년 19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도 22만 달러로 증가함.

- 직접투자규모 추이: 3만 달러(2010) → 없음(2011) → 19만 달러(2012) → 22만 달러(2013)

<표 4> 한·그리스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1	2012	2013	주요품목
수 출	1,350	1,909	884	선박, 합성수지, 건전지 및 축전지
수 입	91	248	272	석유제품, 기호식품, 모피, 아연광
합 계	1,441	2,157	1,156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그리스는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미미하게 개선되고 있음. 금년에는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 등으로 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며 재정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축소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 2012년 6월 2차 총선에서 신민주당 중심의 연정이 구성됨. 그러나 2013년 6월 말 민주좌파의 탈퇴 등으로 연정의 의석수는 300석 가운데 과반수를 간신히 웃도는 상태에서 구제금융조건 이행 등과 관련하여 강력한 야당 등장으로 정치불안이 우려됨.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 및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실업률이 상승함에 따라 사회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음.
- 그리스 정부채무는 2013년 말 GDP의 175.1% 수준에 이르며, 2014년 3월 말 기준 신용평가기관의 그리스 신용등급은 S&P 기준 B- 수준으로 평가됨. 경상수지 흑자 전환, 재정수지 적자 축소, EU와 IMF의 자금지원 지속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정치적 불안정이 구제금융 조건 이행에 부정적 작용을 할 가능성도 있음.

선임조사역 김찬수 (☎02-3779-5703)

E-mail: avik@koreaexim.go.kr